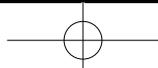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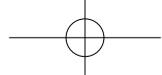
祈りと共に 기도와 함께

写真で見る 宣教100年の歩み
사진으로 보는 선교100년의 발자취



在日大韓基督教会





発刊辞

総会長
鄭然元
총회장
정연원



在日大韓基督教会に宣教100周年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神さまに感謝いたします。

在日大韓基督教会は宣教100年を迎え、さまざまな事業を計画推進してきました。

100年！この短くはない歳月を振り返る方法の一つとして準備されたこの100周年記念の写真集の発刊は、私たち^{在日大韓基督教会}の歴史を視覚的に感じることできる、とても意味のあるものです。

100年の歴史を一目で見られるように整理して発刊されるこの写真集は、20世紀の激動期に生きてきた私たちの民族の移民の歴史であり、苦難と忍耐の足跡であり、神さまの慰めを経験しうるものであり、歴史の証しでもあります。

「歴史が読めれば、歴史が書け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在日大韓基督教会の歴史を通して在日同胞の歴史を学び、過去を通して現在を整理し、未来への希望をいただくことを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

在日の歴史は、その中に共におられる神さまの導きを見つげ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り、信仰の先輩たちの恨が宿る歩みは、苦難と差別の克服についての学びを与えてくれるものであり、今日、私たちが日本の地において暮し、教会が存在することの理由と意味を教えることなのでしょう。そして将来、私たちの子孫が生きていくにあたって、希望と信仰の道を歩むようになることを願うものでもあります。

歴史を整理することにおける最も大きな苦しみは、資料が足りないことと、真実な歴史を残すための生みの苦しみです。

そのような働きを責任をもって担い、誠実に、また適切に作業を進めてくださいました委員の皆さまに心からの感謝をささげ、写真集の発刊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재일대한국교회 선교100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일대한국교회 선교100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추진해 오고 있다.

100년! 짧지 않은 세월을 되돌아보는 방법 가운데 준비된 100주년기념 사진집은 우리 재일대한국교회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간되는 이 사진집은 20세기의 격동기를 겪은 우리 민족의 이민의 역사요, 고난과 인내의 발자취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며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역사를 읽으면 역사를 쓴다” 는 말이 있다. 재일대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재일동포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통해 오늘을 정리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일의 역사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으며, 신앙의 선배들의 한 맺힌 발자취는 고난과 차별의 극복을 배우게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일본 땅에 살며 교회가 존재함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감에 있어 희망과 믿음의 길을 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가장 큰 고통은 사료의 부족함과 진실된 역사를 남기는 고통의 작업일 것이다.

이 일에 책임 맡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진집 발간사에 대합니다.



在日大韓基督教会前史

■ 李樹廷の受洗とその働き

1882年、朝鮮政府の第4次修信使の非公式随員として来日した李樹廷は、クリスチャン農学者の津田仙と出会い、翌1883年4月に受洗した。その後、朝鮮人留学生を中心に朝鮮人教会を開設し、信仰共同体の形成に努めた。李樹廷は聖書を翻訳し、また米国からのH・アンダーウッド(北米長老会)、H・アペンセラ(北米監理会)両宣教師の朝鮮派遣に影響を与えた。東京における朝鮮人教会は1886年5月、李樹廷の帰国で中断するが、彼によって蒔かれた種はその後の母国教会の形成につながり、また彼と日本の指導的キリスト者との交わりは、在日教会の形成に引き継が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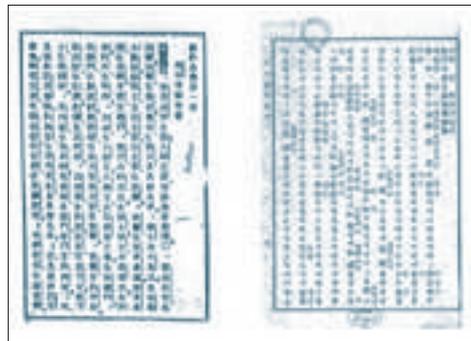


日本のキリスト教の指導者が集った第3回全国基督教信徒大会親睦会(1883年5月)。最前列の右から4番目が李樹廷、その左隣りが津田仙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제3회 전국기독교인 신도대회 친목회(1883년 5월). 맨 앞줄 오른쪽 4번째가 이수정, 그 왼쪽이 津田仙

■ 李樹廷의 受洗과 그 사역

1882年, 朝鮮政府의 第4次修信使 非公式隨員으로서 到日한 李樹廷은 크리스찬 農學者인 津田仙과 만나 이듬해 1883年4月에 세례를 받았다. 그 후 朝鮮人留學生을 中心으로 朝鮮人교회를 開設하고 信仰共同體 形成에 힘썼다. 李樹廷은 聖書を 翻譯하고 또 미국의 언더우드(北長老會), 아펜젤러(北監理會) 선교사의 朝鮮派遣에 影響을 주었다. 東京에서의 朝鮮人교회는 1886年5月 李樹廷의 귀국으로 중단되나 그에 의해 뿌려진 씨는 그 후 모국 교회 형성으로 연결되고 그와 日本의 기독교계 指導者와의 交제는 在日교회 形成에 이어졌다.



李樹廷訳の聖書
이수정 역 성경



アンダーウッド
언더우드 선교사



アペンセラ
아펜젤러 선교사



李樹廷直筆の漢詩
이수정 직필의 한시



東京朝鮮YMCA創立当時の会員たち 東京朝鮮YMCA창립 당시 회원들

■ 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の設立

1906年には、増え続ける留学生の指導のために、朝鮮基督教青年會(YMCA)が東京に設立された。東京朝鮮YMCAでは、聖書研究や礼拝が行われた。

■ 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의 設立

1906년에는 계속 늘어가는 留學生의 指導를 위해 朝鮮基督教青年會(YMCA)가 東京에 設立되었다. 東京朝鮮YMCA에서는 聖書研究나 예배가 行해졌다.

1882 ~



朝鮮イエス教長老会と朝鮮監理会による宣教 朝鮮예수교長老會와 朝鮮監理會에 의한 선교

東京教会の設立と在日宣教の始まり

1908年、平壤より来日していた鄭益魯長老、金貞植 YMCA総務および留學生が集まり、YMCAとは別に教会を設立（東京教会）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長老会に牧師の派遣を要請したことが今日の在日宣教の始まりである。

東京教會의 設立과 在日선교의 시작

1908年 평양에서 도일하였던 鄭益魯長老, 金貞植 YMCA총무 및 留學生이 모여, YMCA와 별도로 교회를 設立（東京教會）하는 것으로 意見一致와, 長老會에 牧師의 派遣을 要請한 것이 오늘의 在日선교의 시작이다.



東京教会の会員たち（1915年3月15日） 동경교회 성도들(1915년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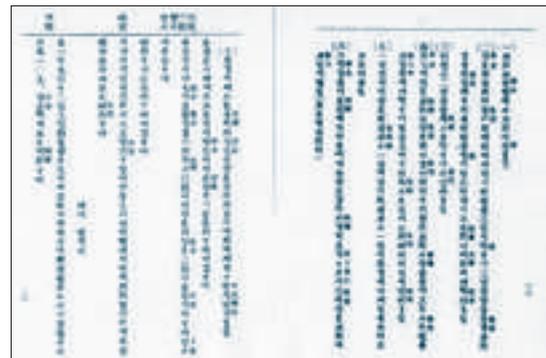
鄭益魯長老 정익로 장로



金貞植東京朝鮮 YMCA總務 김정식 동경조선 YMCA총무

長老会と監理会による宣教

1909年10月に朝鮮イエス教長老会獨老会の韓錫晋牧師が約3カ月間滞在し、教会の組織を整え、伝道長老に後事を託すことになった。1912年には朝鮮イエス教長老会と監理会による宣教合意がなされ、長・監イエス教連合による宣教が実施されることになり、教会名は「東京連合イエス教会」、派遣牧師の任期は交互に2年とされ、1913年に朱孔三牧師が赴任した。



東京伝道に関する、長老会と監理会との合意内容（『イエス教長老会朝鮮總會第1回会録』1912年9月より） 동경 전도에 관한 장로회와 감리교의 합의 내용（『예수교 장로회조선총회 제1회 회록』, 1912년 9월）

長老會와 監理會에 의한 선교

1909年10월에 朝鮮예수교長老會 獨老會의 韓錫晋牧師가 約3개월간 체재하고 교회의 組織을 정비하고 전도長老에게 뒷일을 맡기게 되었다. 1912년에는 朝鮮예수교長老會와 監理會에 의한 선교 合意가 이루어져 長・監예수교연합에 의한 선교가 실시되어, 교회 이름은 「東京연합예수교회」, 派遣牧師의 任期는 2年마다 교대로 1913년에는 朱孔三牧師가 赴任했다.



韓錫晋牧師 한석진 목사



朱孔三牧師 주공삼 목사



■ 伝道活動の広がり

1910年の韓国併合以降、朝鮮人労働者は関西をはじめ愛知、九州、北海道などの日本労働市場の底辺層に流入し、定着しはじめた。これに伴って伝道も、留学生から労働者へ、東京地域から関西、九州、中部、北海道へと全国規模で広がり始めた。1917年頃からは横浜と神戸に、1920年代の初めには大阪、京都、名古屋にも伝道活動が開始され、教会が設立された。

この時期1919年には、2・8独立宣言式が挙行された。また、1923年9月の関東大震災においては、6,000人以上の朝鮮人が虐殺された。そのような試練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も、キリストの福音は着実に宣べ伝えられた。

■ 전도 활동의 확대

1910年の 한일합방 이후, 朝鮮人 노동자는 관서를 비롯해 愛知, 九州, 北海道 등의 일본 노동시장의 저변층에 流入되어, 定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도도 유학생으로부터 노동자로, 東京地域에서 관서, 九州, 中部, 北海道 에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7년경부터는 横浜, 神戸 에, 1920년대부터는 大阪, 京都, 名古屋 에도 전도 활동이 시작되어, 教会가 設立되었다.

이 時期인 1919년에는 2・8獨立宣言式이 거행되었다. 또한 1923년 9월의 關東大地震에 있어서 6,000명 以上の 朝鮮人들이 虐殺당했다. 이와 같은 試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도 기독교 복음은 착실히 전파되었다.



2・8獨立宣言의 리더들 : 中心メンバーのほとんどは東京教会の会員であった。

2.8 독립선언의 리더들 : 중심 멤버의 대부분은 동경 교회 성도들이었다.



2・8獨立宣言が行われた当時の東京朝鮮YMCA会館 : 東京教会も礼拝堂として使用していた。

2.8 독립선언이 거행될 당시 東京朝鮮YMCA회관 : 동경교회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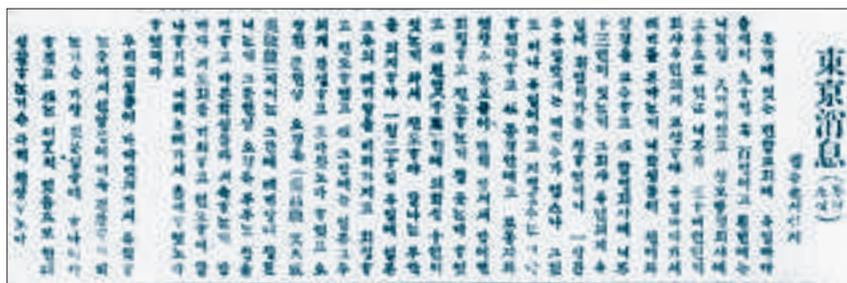
神戸における伝道について記した『基督申報』(1919年1月22日号)

코베 전도에 관하여 기록한 『기독신보』 (1919년 1월 22일호)



震災時に焼失した東京朝鮮YMCA会館の跡地

關東大地震 때 소실된 東京朝鮮 YMCA회관의 흔적



横浜伝道に関する記述が掲載された『基督申報』(1918年2月6日号)

요코하마 전도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기독신보』 (1918년 2월 6일호)



1924年から関西で活動した朴淵瑞牧師

1924년부터 관서 지방에서 활동한 박연서 목사

1908~1924



朝鮮イエス教連合公議會とカナダ長老教会による宣教 朝鮮예수교연합공의회와 캐나다장로교회에 의한 선교

■ 朝鮮イエス教連合公議會の発足

1924年9月の朝鮮イエス教連合公議會（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の前身）の発足により、在日宣教は連合公議會に引き継がれた。1925年には名古屋より伝道者の派遣要請があり、大阪より神学生が遣わされた。1926年に九州地方に吳澤寬牧師が連合公議會から派遣された。

■ 朝鮮예수교연합공의회의 발족

1924年9月の朝鮮예수교연합공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전신）의 발족에 의한 在日선교는 연합공의회로 이어졌다。1925년에는 名古屋에서 전도자의 派遣 要請이 있고, 大阪에서 신학생이 파견되었다。1926년에 九州地方에 吳澤寬牧師가 연합공의회로부터 파견되었다。



小倉教会 (1929年7月21日)
고꾸라교회 (1929년 7월 21일)



名古屋への全彌淳神学生の派遣について記した『基督申報』(1925年2月18日号)
나고야에 파견된 전필순 신학생에 관해 기록한 『기독신보』 (1925년 2월 18일호)



福岡教会3周年記念 (1930年3月2日)
후쿠오카교회 3주년 기념 (1930년 3월 2일)



吳澤寬牧師
오택관 목사



■ 캐나다長老教会の在日宣教への参加

1927年にはカナダ長老教会が在日宣教に加わることを決定し、L・L・ヤング宣教師たちが積極的に伝道活動を行うようになった。カナダ長老教会の在日宣教への財政的な支援は、朝鮮人牧師・伝道者数の増加につながり、教会の成長をもたらした。1928年から1934年までに、教会数と教会員は2倍近くになり、45の教会、信徒数2,300人にな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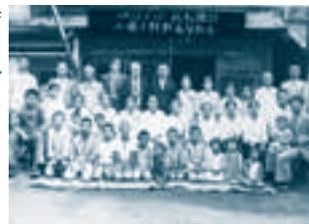
■ 캐나다장로교회의 在日선교 참가

1927년에는 캐나다장로교회가 在日선교에 가담하는 것이 결정되어 L・L・영 선교사들이 積極적으로 전도 활동을 행하였다. 캐나다장로교회의 在日선교에의 財政적인 支援은 朝鮮人牧師・전도자 수의 증가에 이어져 教會의 성장을 가져왔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에 教會 수와 教會원은 2배 가까이 되고 45의 教會, 信徒 수 2,300명이 되었다.



大阪朝鮮連合復興會
(1932年4月2日)
오사카조선연합부흥회(1932년 4월 2일)

小樽市朝鮮基督敎會
(1933年8月13日)
오타루시 조선기독교회(1933년 8월 13일)



カナダ長老教会の
宣教師たち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들

■ 教会の働き

国を奪われ、農地を失い、生活の糧を求めて日本に来た朝鮮人労働者は、日本でも蔑視され、賃金差別などの中での生活を余儀なくされた。彼・彼女らにとって教会は、癒しと心のやすらぎをおぼえるオアシス的な場所であると共に、故郷の情報や民族の痛みを分かち合う信仰

共同体であった。また教会は、在日朝鮮人にとって必要な日本語や朝鮮語、歴史を教えるための夜学校や幼稚園の開設に努め、1933年に夜学校24校、幼稚園9園になり、在日社会の教育事業に奉仕した。

■ 教會의 사역

나라를 빼앗기고, 農地를 잃어 生活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日本에 온 朝鮮人 노동자는 日本에서도 蔑視받고, 賃金差別等 가운데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教會는 치유와 마음의 안정을 기억할 수 있는 오아시스적인 場所임과 동시에 고향의 소식이나 民族의 아픔을 나누는 信仰共同體였다. 또한 教會는 在日朝鮮人에게 있어서 필요한 日本語나 朝鮮語,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夜學校나 幼稚園의 開設에 힘썼다. 1933년에 夜學校24校, 幼稚園9園이 되고, 在日사회의 教育 사업에 봉사했다.



今宮幼稚園第2回卒業式(1930年3月24日)
이마미야 유치원 제2회 졸업식(1930년 3월 24일)



女性伝道師の働きを記したカナダ長老教会女性宣教会の機関誌『The Glad Tidings』(1929年6月号)
여전도사의 활동을 기록한 캐나다장로교회 여선교회 기관지 『The Glad Tidings』(1929년 6월호)

■ 女性伝道師の働き

1928年からは、女性の伝道師たちが奉仕するようになり、牧師と協力して、日曜学校や夜間学校、聖書研究、家庭訪問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った。また、無牧の教会や伝道所を応援して回った。

■ 女性전도사의 사역

1928년부터는 女性전도사들이 奉仕하게 되어, 牧師와 協力하여, 주일학교나 夜間학교, 성경연구, 가정방문에 있어서 중요한 役割을 수행 하였다. 또 無牧교회나 전도소를 응원하며 순회했다.

1925~1933



在日本朝鮮基督教会の創立 在日本朝鮮基督教會의 創立

■ 在日本朝鮮基督教会大会の創立

1934年2月、在日本朝鮮基督教会大会が創立された。これにより信条、憲法を制定し、4中会、1地方会を擁する組織教会となった。また、牧師の按手および長老將立が執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1940年、信徒総数は4,000名になった。1936年に日本基督教連盟に加盟する際、「朝鮮基督教会」と改称した。



第2回総会 (1936年5月6日)
제2회 총회(1936년 5월 6일)



関西中会第2回定期総会 (1935年4月9日)
관서지방회 제2회 정기총회(1935년 4월 9일)



関東中会創立記念 (1937年4月14日、於：東京中央教会)
관동지방회 창립기념(1937년 4월 14일, 장소: 동경중앙교회)



在日本朝鮮基督教第一回大會

在日本朝鮮基督教会第1回大会 (1934年2月23日)
재일본조선기독교교회 제1회 대회(1934년 2월 23일)



中北中会總會録 (1938年)
중북중회 총회록(1938년)



■ 日本基督教会への吸収合併

在日本朝鮮基督教会の時期は6年余の短い期間であったが、在日朝鮮教会の組織的自治が計られ、固有な営みが始まった画期的な時期であった。しかし、日本の中国侵略の下で、宗教団体法の公布の動きにともない、1938年、第3回総会において、日本基督教会との「協調」または「合同」を決議した。日本基督教会との交渉の中で示された条件は、「日本基督教会の信条への服従」、「布教における日本語の使用」、「教役者の再試験」などであった。1939年、宗教団体法の公布に伴い「協調」の道はなくなり、1940年1月、臨時総会を開催し、日本基督教会から示された条件による「合同」を決議するに至った。この吸収合併は在日朝鮮教会にとって屈辱的であり、苦渋の中での決断であった。

1940年2月より、日本基督教会への教会加入申請および教師・教師補の加入申請が中会ごとに行われた。60教会・伝道所が日本基督教会に加入した。

■ 日本基督教会에 吸収合併

在日本朝鮮基督教会의 시기는 6年余 짧은 期間이었지만 在日朝鮮教会의 組織的自治가 시도되어 固有의 營위가 시작한 획기적인 期間이었다. 그러나 日本의 中国 침략 하에, 종교단체법 公布의 움직임과 함께 1938年 第3回 總會에서 日本基督教会와의 「協調」 또는 「合同」을 決議했다. 日本基督教会와의 교섭 가운데 제시된 조건은 「日本基督教会 信條에 복종」, 「布教에 있어서 日本語使用」, 「교역자 재시험」 등이었다. 1939年, 종교단체법의 공포와 아울러 「協調」의 길이 없어지고, 1940年1月,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日本基督教会로부터 제시된 조건에 의한 「合同」을 決議하게 되었다. 이 흡수 합병은 在日朝鮮教会에 있어서 굴욕적이며 쓰라린 결단이었다.

1940年2月부터 日本基督教会에 교회 加入申請 및 教師·教師補의 加入申請이 中會마다 行해졌다. 60교회·전도소가 日本基督教会에 加入되었다.



第2回関西共勵青年修養会 (1936年8月19日)
제2회 관서 共勵 청년수양회 (1936년 8월 19일)



名古屋教会婦人会 沈恩澤先生送別記念 (1938年3月27日)
나고야교회 부인회 沈恩澤선생님 송별 기념 (1938년 3월 27일)



日本基督教会宛に出された名古屋教会の「教会加入願」(1940年2月)
일본기독교회 앞으로 보내진 나고야교회 「교회 가입원」 (1940년 2월)



関東地方学生会 (1938年5月2日)
관동지방회 신학생 (1938년 5월 2일)



第3回総会 (1938年5月5日)
제3회 총회 (1938년 5월 5일)

1934~1940



日本基督教会、日本基督教団への統合時期

日本基督教會，日本基督教團에의 통합 時期

■ 日本基督教団の成立

日本の国家権力が宗教に対する統制を本格化させる中、1940年12月にカナダ長老教会の宣教師一行が帰国した。1941年6月の日本基督教団成立時には、日本基督教会として第1部に統合させら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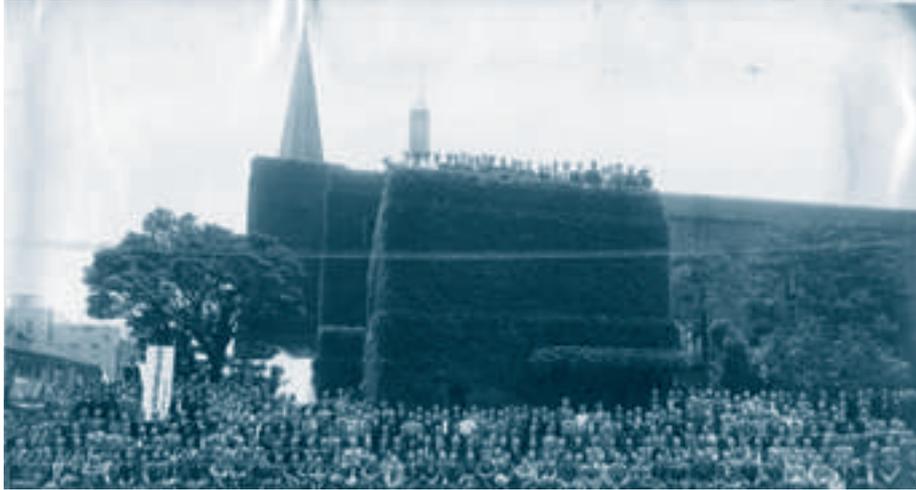
■ 日本基督教團의 成立

日本の 國家 권력이 종교에 대한 統制를 本格化하는 가운데 1940年 12월에 캐나다 장로 교회의 선교사 일행이 귀국했다. 1941年 6月の 日本基督教團 成立時에는 日本基督教會로서 第1部에 統合되었다.



教團設立同意書 (1941年6月4日) : 教会主管者の「天城致善」は金致善牧師のこと

교단 설립 동의서 (1941년 6월 4일) : 교회주관자 天城致善은 김치선 목사



日本基督教団創立總會 (1941年6月24~25日)

일본기독교단 창립 총회 (1941년 6월 24~25일)

■ 官憲による弾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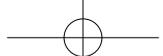
日本が太平洋戦争へと突入していく中、在日朝鮮人教会に対しては、官憲の監視と弾圧、創氏改名や日本語使用、皇民化政策は厳しさを増した。1941年からは治安維持法違反容疑などによる教会指導者の連行・拘束が始まった。同年10月には明石教会、京都南部教会、伏見教会が教会廃止に追い込まれた。12月には太平洋戦争突入による「非常措置」として特別高等警察が在日朝鮮人の一斉検挙を始め、124名を逮捕・連行した。その中には愛知11名、大阪3名、兵庫4名のキリスト者が含まれてい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日本人牧師が在日朝鮮教会の主管者となり、礼拝も日本語で行うことが強いられた。1945年2月には、教会数48カ所、会員数3,088名、正教師25名中現住者12名、補教師44名中現住者9名に減少した。

■ 官憲에 의한 탄압

日本이 太平洋전쟁에 突入해 가는 중, 在日朝鮮人教會에 대해서는 官憲의 監視와 탄압, 創氏改名과 日本語使用, 皇民化政策은 더욱 엄해져 갔다. 1941년부터는 治安維持法違反容疑등에 의한 교회 指導者의 連行・拘束이 시작되었다. 同年10月에는 明石教會, 京都南部教會, 伏見教會가 교회폐지를 당했다. 12月에는 太平洋전쟁 突入에 의한 「非常措置」로서 特別高等警察이 在日朝鮮人의 一齊 검거를 시작해 124名을 逮捕・連行했다. 그 가운데 愛知 11名, 大阪 3名, 兵庫 4名의 기독교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 日本人牧師가 在日朝鮮教會의 主管者가 되고, 예배도 日本語로 행하도록 강요되었다. 1945年2月에는 教會數 48개소, 會員數 3,088名, 正教師 25名中 現住者 12名, 補教師 44名中 現住者 9名으로 減少했다.



日本基督教団時代の難波今宮教会(現・大阪西成教会/1941年8月24日)
일본기독교단 시절의 난바 이마미야교회(현재 오사카 니시나리교회 /1941년 8월 24일)



宇部新川教会 創立10周年記念式、聖殿献堂式、長老任職式、功労者表彰式(1942年10月4日)
우베 신카와교회 창립10주년 기념식, 성전 헌당식, 장로 임직식, 공로자 표창식(1942년 10월 4일)



下関教会創立15周年記念式(1943年5月23日): 門柱に「日本基督教団下関大坪教会」とある。
시모노세키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1943년 5월 23일): 문 기둥에 일본기독교단 시모노세키 오츠보교회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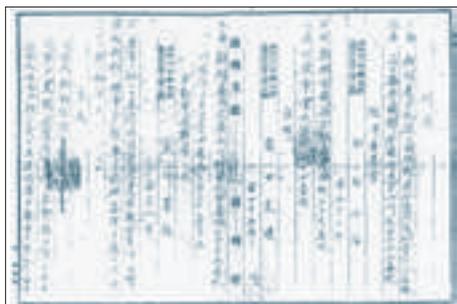
京都南部教会建設式・長老任職記念(1941年6月1日): 黄善伊牧師(前列右端)と金在述長老(同左端)は、この後、1941年7月に治安維持法違反容疑で逮捕された。
교토 남부교회 건설식 및 장로 임직기념(1941년 6월 1일): 황선이 목사(앞줄 오른쪽 끝)와 김재술 장로(앞줄 왼쪽 끝)는 그 후 1941년 7월 치안 유지법 위반 용의로 체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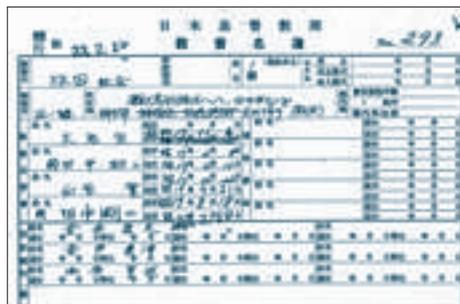
廃止された伏見西伝道所(伏見教会)
폐지된 후시미니시 전도소(후시미교회)



林田教会(1943年6月18日): 中央が田中剛二牧師
하야시다교회(1943년 6월 18일): 가운데 田中剛二 목사



1944年8月に治安維持法違反容疑で逮捕された朴尚東牧師(判決文中は「松村正治」と李完模牧師(「菊田完模」)に対する判決文
1944년 8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박상동 목사(村松正治)와 이완모 목사(菊田完模)에 대한 판결문



林田教会(現・神戸教会)の日本基督教団教会名簿:「教会主管者」欄に代務者として、田中剛二牧師の名前がある。
하야시다 교회(현재 코베 교회)의 일본기독교단 교회명부: 교회 주관자란에 대리자로서, 田中剛二목사 이름이 있다.

1940 ~ 1945



教会再建と新たなる地平

교회 재건과 새로운地平

■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の創立

1945年8月15日、日本の敗戦と同時に、解放された祖国への民族の大移動がおこった。在日朝鮮人の大半が帰国を考え、その準備をする中で、解放後の在日大韓基督教会の再建が始まった。

日本に残った教職者・信徒たちは、1945年10月30日、大阪教会において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創立準備委員會を開催した。この準備委員會を経て同年11月15日に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創立總會が京都教会において開催された。そして、参加教会21、出席者47名(内牧師3名)のもと、教派を超えての連合會の創立、規則の制定、日本基督教團からの脱退、教会の統廃合が決議された。

翌年9月の定期總會の参加教会は10教会、代議員37名。洗礼会員はわずか230名に減少していた。1947年、第3回定期總會において「連合會」を「總會」に改称し、憲法と信條が制定され、翌年の第4回定期總會において「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と改称した。



再建のための發起人の呼びかけ文 (1945年10月22日付)
재건을 위한 발기인회 호소문 (1945년 10월 22일부)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創立總會 (1945年11月15日、於：京都教会)
재일본조선기독교 연합회 창립 총회 (1945년 11월 15일, 교토교회)

■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의 創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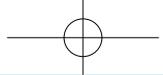
1945年8月15日、日本の 패전과 동시에 解放된 조국으로 民族의 大移動이 行해졌다. 在日朝鮮人의 대다수가 귀국을 생각하고, 그 準備를 하는 가운데 解放後의 在日大韓基督教會의 再建이 시작 되었다.

日本에 남은 教職者・信徒들은 1945年10月30日、大阪教會에서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 創立 準備委員會를 開催했다. 이 準備委員會를 거쳐 同年 11月15日에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會 創立總會가 京都教會에서 開催되었다. 그리고 참가교회 21, 出席者47名(그 중 牧師3名) 으로 교파를 초월한 連合會의 創立, 規則制定, 日本基督教團으로 부터의 탈퇴, 教會의 統廢合이 決議되었다.

이듬해 9月の 定期總會 참가교회는 10교회, 代議員37名. 세례교인은 겨우 230名으로 減少해 있었다. 1947年 第3回定期總會에서 「連合會」를 「總會」로 개칭하고 憲法과 信條가 制定되어 이듬해 第4回定期總會 에서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로 개칭하였다.



第3回定期總會における憲法通過の現場 (1947年10月15日、於：大阪教会)
제3회 정기총회에 있어서 헌법 통과 현장 (1947년 10월 15일, 장소:오사카교회)



■ 在日大韓基督教会 (KCCJ) の始動

1949年2月、L・L・ヤング一行が来日し、カナダ長老教会が再び在日宣教に加わる事となった。1950年12月関西地方会、1951年4月関東地方会、6月西南地方会が組織されると共に、勉勵青年会連合会(1948年)および婦人伝道会(1949年)もこの時期に再組織された。1951年7月には『基督申報』(『福音新聞』の前身)を発行して文書伝道に寄与するようになった。



L・L・ヤング牧師歓迎記念(1949年3月6日、於：神戸教会)
L.L.영 목사 환영 기념(1949년 3월 6일, 장소:코베교회)

■ 在日大韓基督教会 (KCCJ) 의 始動

1949年2月、L・L・영一行이 도일해 캐나다장로교회가 다시 在日 선교에 가담하게 되었다. 1950年12月 관서지방회, 1951年4月 관동지방회, 6月 서남지방회가 組織됨과 함께 먼려청년회연합회(1948年) 및 부인전도회(1949年) 도 이 時期에 再組織되었다. 1951年7月에는 『基督申報』(『福音新聞』의 前身)을 발행하여 文書전도에 기여하게 되었다.



関西連合查經会(1949年1月8日、於：京都教会)
관서연합 사경회(1949년 1월 8일, 장소:교토교회)

関東地方会第6回定期総会(1955年9月)
관동지방회 제6회 정기총회(1955년 9월)



西南地方会修養会(1952年夏期)
서남지방회 수양회(1952년 여름)



在日大韓基督婦人伝道会第8回総会(1956年10月6日)
재일대한기독교 부인 전도회 제8회 총회(1956년 10월 6일)



在日朝鮮基督勉勵青年会連合修養会(1948年8月24日、於：比叡山)
재일조선기독교 勉勵청년회 연합 수양회(1948년 8월 24일, 장소:히에이산)



『基督申報』創刊号(1951年7月10日)
『기독신보』창간호(1951년 7월 10일)

■ 宣教50周年：「私たちの生きる道はイエス」(1958~1967)

1958年「宣教50周年」の記念式典が東京教会にて行われた。これ以降10年ごとに標語をかかげて10カ年の宣教事業を実施することになった。KCCJは解放後、伝道と教会の再建・設立に重きを置いた。この時期、北海道への開拓伝道が再開(1958年)された。また、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1956年)をはじめ、世界改革教会連盟(WARC/1958年)、世界教会協議会(WCC/1962年準会員)、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CCA/1964年)に加盟することにより、宣教の業をエキュメニカル(教会一致)な協調の中で遂行するようになった。

■ 宣教50周年：「우리의 살 길은 예수」(1958 - 1967)

1958年「선교50周年」의 記念式典이 東京教會에서 行해졌다. 이 후로 10年마다 標語를 걸고 10개년 선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KCCJ는 解放後, 전도와 교회의 再建・設立에 중점을 두었다. 이 時期, 北海道에의 開拓전도가 再開(1958年) 되었다. 또 日本기독교協議會(NCCJ / 1956年)를 비롯해 世界改革教會連盟(WARC / 1958年), 世界教會協議會(WCC / 1962年 準會員), 아시아기독교協議會(CCA / 1964年)에 가맹 함으로 선교를 에큐메니칼(교회일치)한 協調 가운데 수행하게 되었다.



50周年記念式典ポスター
50주년 기념식전 포스터



50周年記念式典(1958年8月15日、於：東京教会)
50주년 기념식전(1958년 8월 15일, 장소:동경교회)

1945~1967



■ 宣教政策の転換点

この時期KCCJは、戦後の歩みの中で、同胞社会の苦悩から目をそらしてきた事実を顧み、宣教の基本的姿勢を福音信仰の帰結として、「キリスト者はその生きている社会に改革をもたらすべき責任ある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そして、宣教政策の転換を図ることになる。

1969年の「出入国管理法案」反対運動の展開、1970年の在日韓国基督教會館(KCC)の設立により、在日同胞の人権獲得運動の先駆的役割を果たすようになった。1973年には「宣教基本政策」が採択された。そこでは、政治的・社会的・思想的抑圧など、全領域における抑圧からの解放が救いであるとの福音理解が述べられると共に、「召しを受けた歴史状況に正しく応答できず、自己保存に汲汲となる時、教会はその生命を失っていくのである」と宣言した。

■ 선교정책 전환점

이 時期 KCCJ는 전후의 발걸음 속에 同胞 사회의 고뇌로부터 눈을 피해왔던 사실을 돌아보며 선교의 기본적인 姿勢를 福音 信仰의 귀결로서, 「기독교자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 변혁을 가져올 책임있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確認했다. 그리고 선교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1969年の「出入國管理法案」 반대運動의 展開, 1970年の 在日韓國基督 教會館(KCC)의 設立에 의한 在日同胞의 人權 획득 運動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선교기본정책」이 채택되었다. 거기에는 政治的・社會的・思想的 억압 등, 全領域의 억압에서의 解放이 구원이라는 福音 理解가 논술됨과 함께 「부르심을 입은 歷史狀況에 응답하지 못하고 自體 保存에 급급할 때 교회 는 그 生命을 잃어버리기 始作하는 것이다」고 宣言했다.



宣教60周年記念式典(1968年10月11日、於：大阪女学院)
선교60주년 기념식전(1968년 10월 11일, 장소:오사카여학원)



宣教60周年記念式典
선교 60주년 기념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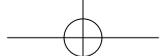
出入国管理法案反対声明書(1969年4月16日)
출입국관리법안 반대성명서(1969년 4월 16일)



出入国法案反対集会(1972年1月30日)
출입국법안 반대집회(1972년 1월 30일)



設立当時のKCC會館
설립 당시의 KCC회관



「宣教基本政策」
「선교기본정책」

■ マイノリティ問題への取り組み

1973年の日北米宣教協力会 (JNAC) への加盟は、北米教会とのエキュメニカルな関係と、新しい宣教課題、とくにマイノリティ問題への使命を担うパートナーとしての関係を築く契機となった。翌年、KCCJは、JNACの協力を得、世界15カ国から代表80名を招いて第1回「少数者問題と宣教戦略」会議を開催し、マイノリティの人権獲得運動の世界的連帯を訴えた。また同年、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 (RAIK) を設立した。

■ 마이노리티 문제의 취급

1973年の日北米宣教協力会 (JNAC) 에 加盟은 북미교회와의 에큐메니칼한 관계와 새로운 선교課題, 특히 마이노리티問題에의 使命을 貰어진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 KCCJ는 JNAC의 협력을 얻어, 世界15개국으로부터 代表80名을 초청해 第1회 「소수자문제와 선교전략」 회의를 開催하고, 마이노리티의 인권 獲得運動의 世界的연대를 호소했다. 또 같은 해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 (RAIK) 를 設立했다.



第1回「少数者問題と宣教戦略」会議 (1974年5月6~10日、於：関西セミナーハウス)

제1회 「소수자의 문제와 선교전략」 회의 (1974년 5월 6~10일, 장소:관서세미나 하우스)



「少数者問題と宣教戦略」會議の晚餐會
「소수자 문제와 선교전략」 회의 만찬회



RAIK発行の『RAIK通信』創刊号 (1988年7月1日)

RAIK 발행의 『RAIK 통신』 창간호 (1988년 7월 1일)

1968 ~ 1977



■ 各教派との宣教協約の締結

宣教70周年の副題は「私たちの希望：同胞の苦しみを共にされるイエス・キリスト」である。この10年間、力を合わせて開拓伝道に努力した結果、各地に開拓教会が設立され、教会員の数も増加した。本国5教団（1981年）、米州韓人長老教会（1985年）と宣教協約が締結された。また1984年2月8日、日本基督教団との間に協約が締結された。

■ 各교파와의 선교협약체결

선교70周年의 副題는 「우리의 희망：同胞의 고통을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10年間, 힘을 맞춰 開拓전도에 努力한 結果, 各地에 開拓교회가 設立되어, 교회원의 수도 증가했다. 本國5教團 (1981年), 米州韓人長老教會 (1985年) 와 선교협약이 체결되었다. 또 1984年2月8日, 日本基督教團과 협약이 締結되었다.



日本基督教団との協約締結記念集会（1984年2月8日、於：大阪教会）
일본기독교단과의 협약체결 기념대회(1984년 2월 8일, 장소:오사카교회)



宣教70周年祝賀大会
선교 70주년 축하대회



協約書に署名する瞬間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宣教70周年祝賀大会（1978年10月10日、於：大阪女学院） 선교 70주년 축하대회（1978년 10월 10일, 장소:오사카여학원）



■ 指紋押捺拒否運動への参与

1980年代に入り、外国人登録法の指紋押捺制度に反対する運動が始まった。1984年にKCCJは、日本基督教団と共に「指紋押捺制度撤廃要求署名」を展開し、8万名にのぼる署名を法務省へ提出した。また、同年11月には指紋拒否実行委員会を結成した。指紋押捺撤廃運動は、日本国内のみでなく、国際的にも日本社会の人権問題として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くに1986年5月にWCCおよびCCAは、9名からなる指紋問題調査団を派遣し、日本各地を訪問した後、調査結果を英文冊子として世界の教会へ配布して、KCCJの運動を支援した。



署名活動の様子 서명활동의 모습

■ 指紋押捺拒否運動에의 참여

1980年代에 들어가 외국인등록법의 指紋押捺制度에 반대하는 運動이 시작되었다. 1984년에 KCCJ는 日本基督教團과 함께 「指紋押捺制度撤廢 要求署名」을 展開하고, 8萬名에 달하는 署名을 法務省에 提出했다. 또 同年11月에는 指紋拒否實行委員會를 結成했다. 指紋押捺撤廢運動은 日本國內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日本社會의 人權문제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1986年5月에 WCC 및 CCA는 9名의 指紋問題調査團을 派遣하고, 日本各地를 訪問하며 調査結果를 英文冊子로 世界교회에 配布했고 KCCJ의 運動을 支援했다.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外登法改正要求決起集会 (1985年1月15日)
재일한국인 기독교인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결기대회 (1985년 1월 15일)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外登法改正要求関西決起大会 (1985年3月24日)
재일한국인 기독교인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관서 결기대회 (1985년 3월24일)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外登法改正要求関西決起大会
재일한국인 기독교인 외국인등록법 개정 요구 관서 결기대회



WCC・CCA調査団を迎えて「指紋押捺」を問う国際連帯のつどい (1986年5月31日)
WCC・CCA 조사단을 맞이하여 지문날인에 대해 묻는 국제 연합 모임(1986년 5월 31일)

1978 ~ 1987



■ 「宣教理念」の発表

1988年、KCCJは「宣教理念」を発表し、90周年に向かう4つの実践目標を掲げた。「自立した100教会」「主の働き人の養成」「在日同胞の生に参与する奉仕」「小さな隣人と共に生きる宣教」がそれである。

■ 「선교이념」 발표

1988年、KCCJ는「선교이념」을 발표하고, 90周年을 향해 4개의 실천목표를 내 걸었다. 「자립된 100교회」「주님의 일군의養成」「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봉사」「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선교」가 그것이다.



宣教80周年記念大会(1988年10月10日、於：中之島中央公会堂)

선교 80주년 기념대회(1988년 10월 10일, 장소:나카노시마 중앙교회당)

宣教80周年記念大会：演劇を行う青年たち
선교80주년기념대회:연극을 하는 청년들



宣教80周年記念大会 선교80주년 기념대회

「宣教理念」の冊子
「선교이념」책자



宣教80周年記念大会のポスター
선교80주년기념대회 포스터

■ 南北平和統一に向けた宣教

この時期に、南北統一宣教への課題が新たにKCCJに与えられた。それは1989年から4回にわたる朝鮮基督教連盟(KCF)への訪問・交流の実施および1990年から8回にわたる「祖国平和統一と宣教に関する基督者東京會議」として実践された。これらの働きを通してKCCJは、日本という「場」における南北祖国の橋渡しを、海外同胞教会の宣教的課題として担うことになった。

■ 南北平和統一을 향한 선교

이 時期에 南北統一선교의 과제가 새롭게 KCCJ에 주어졌다. 그것은 1989년부터 4회에 걸쳐 朝鮮基督教連盟(KCF)을 방문・交流의 실시 및 1990년부터 8회에 걸쳐 「祖國平和統一과 선교에 관한 基督者東京會議」로서 실천되었다. 이런 사역을 통해 KCCJ는 日本이라는 「場」에서 南北 조국의 교량역할을 하고, 海外同胞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짊어져 왔다.



第1次KCF訪問 (1989年7月29日~8月12日)
제1차 KCF 방문 (1989년 7월 29일~8월 12일)



第1回東京会議 (1990年7月10~13日、於：
東京韓国YMCA)
제1회 동경회의 (1990년 7월 10~13일,
장소 : 동경한국YMCA)



第2回東京會議 (1991年7月9~12日、於：
東京韓国YMCA)
제2회 동경회의 (1991년 7월 9~12일,
장소 : 동경한국YMCA)



第2回東京會議 제2회 동경회의



第3次KCF訪問 (1993
年4月30日~5月11日) :
離散家族との再会
제3차 KCF 방문
(1993년 4월 30일~
5월 11일) : 이산가족
과의 재회

■ 「マイノリティ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の主催

1994年には第2回「マイノリティ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を主催した。世界14カ国、20のマイノリティと教界から106名の代表が参加し、「マイノリティ京都声明」が採択された。会議では、KCCJが世界教会の中で、マイノリティとしての使命の自覚と役割が期待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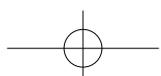
■ 「마이노리티 문제와 선교전략」 국제회의의 주최

1994년에는 第2回「마이노리티 문제와 선교전략」 국제회의를 주최했다. 세계14개국, 20의 마이노리티 교계에서 106명의 대표가 참가하고「마이노리티 京都聲名」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KCCJ가 세계교회 가운데, 마이노리티로서의 사명의 자각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確認했다.



第2回マイノリティ国際会議 (1994年10月25~29日、於：関西セミナーハウス)
제2회 마이노리티 국제회의 (1994년 10월 25~29일, 장소 : 관서 세미나 하우스)

1988 ~ 1997





■ 荒野の50年を越えて

90周年を迎えてKCCJ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宣教的使命－荒野の50年を越えて」を発表した。そして、90周年からの10年においても、それまでの宣教課題を引き続き担った。



宣教90周年記念大会(1998年10月10日、於：大阪聖マリア大聖堂)
선교90주년기념대회(1998년 10월 10일' 장소: 오사카 성마리아 대성당)

■ 荒野의 50년을 넘어서

90周年을 맞이하여 KCCJ는 「在日大韓基督教회의 선교적사명－荒野의 50년을 넘어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90周年부터의 10년동안에도 그 때까지의 선교과제를 계속 짚어졌다.



宣教90周年記念合同研修会(1998年8月13～15日、於：富士箱根ランド)
선교90주년 기념 합동연수회(1998년 8월 13～15일, 장소: 후지 하코네 랜드)

合同研修会に参加した青年たち
합동연수회에 참가한 청년들



■ 総会神学校と牧会者の輩出

2000年9月には、1996年に設立された東京総会神学校(現・総会神学校)の第1回卒業式がもたれ、2名の卒業生をKCCJの牧会者として送り出した。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創立50周年記念集会(1999年6月29～7月1日)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50주년 기념집회(1999년 6월 29～7월 1일)

■ 총회신학교와 목회자의 배출

2000年9月에는 1996년에 설립된 동경총회신학교(現・총회신학교)의 第1回卒業式이 있었고, 2名の卒業生을 KCCJ의 목회자로서 배출했다.



東京総会神学校第1回卒業式 동경총회신학교 제1회 졸업식



現在の総会神学校
현재의 총회신학교

■ 『宣教90周年記念誌』の発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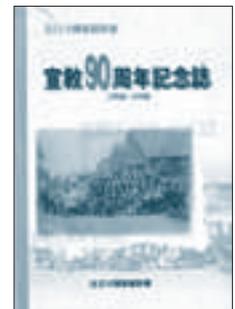
2002年には、KCCJの各教会および各地方会、女性会や青年会などの歴史を一冊にまとめた『宣教90周年記念誌』を発刊した。KCCJに集う各教会や機関の歴史を初めて一冊にまとめた同記念誌の意義は大きい。

なお、1999年の第45回定期総会において、KCCJはその名称を「在日大韓基督教会」と改めた。

■ 「선교90주년기념지」發刊

2002년에는 KCCJ의 各教會 및 各地方會, 女性會나 青年會등의 歷史를 모아 『선교90주년기념지』를 發刊했다. KCCJ의 各教會나 機關의 歷史를 처음으로 한권으로 모은 記念誌의 意義는 크다.

나아가 1999年の 第45回 定期總會에서 KCCJ는 그 명칭을 「在日大韓基督教會」로 수정했다.



『宣教90周年記念誌』
『선교 90주년기념지』

1998～2007



■ 100周年を迎えて

宣教100周年の副題は、「遣わされたこの地で宣教に参与する教会」(創世記45:5)である。解放後、数名の教職者と信徒約300名をもって再出発したKCCJは、宣教10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約100カ所の教会と伝道所を保有し、約100名の教役者と、約7,000名の信徒を有する教団として成長した。

100周年を迎えたKCCJは、「宣教100周年宣教理念」を発表し、神に遣わされたディアスポラの地である日本において、いのちを救う働きを行うことが、神から与えられたKCCJの宣教使命であることを告白した。

■ 100周年을 맞아

선교100周年의 副題는「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創世記45:5)이다. 解放後 몇명의 敎役者와 信徒約300名을 가지고 재출발한 KCCJ는 선교100周年을 맞으면서 約100개의 교회와 전도소를 보유하고 約100명의 敎役者, 約7,000명의 信徒를 지닌 교단으로 成長했다.

100周年을 맞이한 KCCJ는「선교100周年선교이념」을 발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의 땅인 일본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KCCJ의 선교 使命인 것을 告白했다.



宣教100周年記念合同修養會(2008年8月13~15日、於:東京プリンスホテル)
선교100주년 합동수양회(2008년 8월 13~15일, 장소: 동경 프린스 호텔)



記念合同修養會における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기념합동수양회에서의 패널 토의



KCCJ가 主管した第6回「海外韓人教会牧會と敎育協議會」(2008年4月2~4日)
KCCJ가 주관한 제6차「해외한인교회목회와 敎育협의회」(2008년 4월 2~4일)



人權シンポジウム
인권 심포지움



第14回KCCJ人權シンポジウム(2008年4月20~22日、於:関西セミナーハウス)
제14회KCCJ 인권 심포지움(2008년 4월 20~22일, 장소: 관서 세미나 하우스)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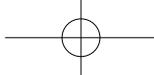
■ 在日大韓基督教会宣教100周年略年表 (1908~2008)

	年	月 日	内 容
創設期	1908		鄭益魯長老、金貞植YMCA総務らが集まり、YMCAとは別に教会設立を決定。東京教会設立
	1909	10月	韓錫晋牧師来日、約3カ月滞在。教会役員を任命。領袖に金貞植、曹晩植、吳舜炯
	1912	9月	朝鮮長老会総会と朝鮮監理会年会は、連合して東京伝道に責任を持つことに合意
	1913	9月	朱孔三牧師(長老会)、東京連合教会赴任。教会情况：洗礼教人80名、毎週出席者80~100名
	1917		神戸神学校専攻科在学生の林澤権、李仁植氏らが神戸在留同胞信者と礼拝所を定めて集会を始める
	1919	2月8日	2・8独立宣言式挙行 場所：東京朝鮮YMCA
		11月15日	京都、学生の礼拝会始まる。13名出席 場所：京都大学キリスト教学生会館
	1921	12月	「ここ(神戸・大阪・京都)にも働き人(伝道者)を送って下さい」の記事が『基督申報』に掲載
		5月	神戸神学校の金禹鉉神学生、大阪難波撰津紡績会社の女工・金義生姉妹と出会い祈禱会を始める。大阪東部教会(現・大阪教会)設立
	1922	3月1日	金二坤牧師(長老会慶南老会)、関西伝道始める
	1923	8月	W.N.Blair宣教師(在平壤)、日本ミッション同盟年次総会に出席し、在日朝鮮人宣教への協力要請
		9月1日	関東大震災発生、東京朝鮮YMCA会館焼失。九州地区(福岡・八幡・小倉)に伝道始まる
1924	3月	関西朝鮮イエス教信徒会結成 場所：明石集会所	
	11月	朴淵瑞牧師(監理会)、関西地方伝道のため来日(長監連合宣教師会派遣)	
成長期	1925	2月3日	全弼淳氏(大阪神学院在学)、名古屋伝道を始める
	1926	12月	吳澤寛牧師(長老会)、九州地方伝道牧師として赴任
	1927	10月3日	カナダ長老教会L.L.Young宣教師来日。在日伝道開始
	1928	6月4日	大阪今宮教会(現・大阪西成教会)、幼稚園設立
	1929	4月	韓泰裕牧師(監理会)、北海道(札幌・小樽・南樺太)伝道開始
		5月6日	第1回九州地方会。会長：吳澤寛、場所：小倉教会
	1930	3月31日	在日本関東朝鮮基督教会諸職連合会発足。会長：金吉昌
1931	4月27日	関西地方勉勵青年会連合会発足。場所：神戸教会	
自立への試み	1934	2月21~23日	在日本朝鮮基督教大会創立。会長：L.L.Young。規則及び憲法の制定。4中会・1地方会
	1935	11月	京都教会礼拝堂新築、警察当局による使用不許可(~1940. 4)
	1936	11月10日	日本基督教連盟へ加盟。名称を「朝鮮基督教会」と改称
	1937	3月2日	日本基督教連盟「朝鮮人伝道委員会」にL.L.Young宣教師、盧震鉉牧師が出席し、伝道支援を要請
	1938	5月5日	第3回朝鮮基督教大会、日本基督教会と「合同」もしくは「協調」することを決定
苦難の道のり	1939	4月	日本基督教会第62回浪速中会、加入にあたっての条件を通告。①日本基督教会の信条に服すること、②教役者の再試験をなすこと、③布教は国語(日本語)を使用すること
		1940	1月16日
	1941	12月10日	L.L.Young宣教師一行帰国。残務は神戸中央神学校G.チャップマンに引き継がれる
		6月24~25日	日本基督教団創立総会。旧朝鮮基督教会の諸教会は日本基督教団第一部に加入
		7月26日	京都南部教会の黄善伊牧師、金在述長老、京都教会の玉文錫氏ら治安維持法違反で検挙される
1944	8月	朴尚東牧師、李完模牧師、李白容執事、崔三錫執事が治安維持法で逮捕、投獄される	
教会再建と新たな地平	1945	11月15日	在日本朝鮮基督教連合会創立総会。21教会、代表47名参加。会長：金琪三。日本基督教団退盟を可決。場所：京都教会
	1946	2月10日	東京教会再建記念礼拝(吳允台牧師就任)
	1947	10月14~16日	第3回定期総会 「在日本朝鮮基督教総会」と改称。憲法及び信条を制定
		10月	勉勵青年会連合会を総会直轄と承認
	1948	10月13~14日	第4回定期総会 「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と改称
	1949	2月11日	L.L.Young宣教師再来日
	1950	9月	在日大韓基督教会連合婦人伝道会創立総会
		12月4日	関西地方会創立総会 場所：大阪教会
	1951	4月3日	関東地方会創立総会 場所：名古屋教会
		6月12日	西南地方会創立総会 場所：下関教会
1954	7月10日	機関紙『基督申報』(福音新聞)創刊号発行	
	2月9日	文化庁より宗教法人認証を受ける	
	3月23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に加盟	
	1956	3月23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に加盟
宣教50周年	1958	8月15日	在日韓国人伝道50周年記念式典 場所：東京教会 標語：「私たちの生きる道はイエス」
	10月14~16日	第14回定期総会 世界改革教会連盟(WARC)の加盟を承認	
	1962	10月17~18日	第18回定期総会 世界教会協議会(WCC)への準会員加盟を承認



	年	月 日	内 容
宣教60周年	1963	10月	中部地方会創立総会
	1964	2月	東アジア・キリスト教協議会 (EACC/現CCA) に加盟
	1968	10月11日	宣教60周年記念式典 場所: 大阪女学院 標語: 「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
		1月28日	第1次本国短期宣教師5名来日、約3カ月間滞在
	1969	4月16日	「出入国管理法案反対声明書」「靖国神社法案反対声明書」を公表
		6月9日	第2回臨時総会 KCC建設案を可決 在日韓国基督教会館 (KCC) 設立
	1970	10月12~14日	第26回定期総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の社会的責任に関する態度表明」
	1972	7月23日	「南北共同声明支持」基督者大会開催。宣言文採択 場所: KCC
	1973	1月	日北米宣教協力会 (JNAC) 準会員加盟
		10月9~11日	第29回定期総会 「宣教基本政策」を採択
	1974	2月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 (RAIK) 設立
		5月6~10日	在日大韓基督教会・JNAC共催「マイノリティ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開催
		10月3日	青年会全国協議会「在日韓国青年キリスト者宣言」発表
1977	4月28~29日	社会局、第1回人権シンポジウム開催 主題「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 場所: 京都教会	
宣教70周年	1978	10月10日	宣教70周年祝賀大会 場所: 大阪女学院 標語: 「我らの希望イエス・キリスト」
		10月11~12日	第34回定期総会 定期総会2年制、改正憲法採択 (女性牧師・長老職按手等)
	1981	10月20~22日	第36回定期総会 大韓監理会、大韓イエス教長老会 (統合・合同)、基督教長老会との宣教協約批准
	1982	3月17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NCC) 総会。議長に李仁夏牧師選出
	1983	4月12日	西南KCCを総会機関として認定 (任職員会)
		7月4日	在日韓国基督教会館 (KCC) 新会館竣工式挙行
	1984	2月8日	日本基督教団との「協約」調印式 場所: 大阪教会
		10月3~6日	第1回海外韓人教会神学会議開催 場所: 天城山荘
	1985	11月6日	在日大韓基督教会指紋拒否実行委員会を結成
		1月15日	在日大韓基督教会指紋拒否東京決起大会。400名参加
		3月21日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外登法改正要求西南決起大会。200名参加
		3月24日	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外登法改正要求関西決起大会。1,000名参加
		7月1日	日本基督教団と「指紋押捺制度撤廃要求署名」8万人分を法務省へ提出
		10月22~24日	第38回定期総会 人権主日制定 米州韓人長老教会 (KPCA)、大韓イエス教長老会 (大神) との宣教協約 関西聖書神学院設立承認
	1986	11月25日	西部地方会創立 場所: 武庫川教会
		5月1日	教育局、教会学校教案シリーズ発行開始
		5月24日~6月1日	WCC・CCA指紋問題調査団9名来日
	1987	1月15~16日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 (外キ協) 発足
		10月20~22日	第39回定期総会 伝道主日制定、東京聖書神学校設立を承認
	宣教80周年	1988	10月10日
1989		5月15~16日	在日大韓基督教社会福祉連盟創立総会
		7月29日~8月12日	第1次朝鮮基督教徒連盟 (KCF) 訪問団6名が平壤訪問
1990		7月10~13日	第1回「祖国平和統一と宣教に関する基督者東京会議」開催。約100名参加 場所: 東京韓国YMCA
1994		10月25~29日	第2回「マイノリティ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開催。マイノリティ京都声明採択
1995		10月9~11日	第43回定期総会 「荒野の50年を越えて」発表
1996		9月12日	東京総会神学校開校
		12月25日	「韓日讃頌歌」発行
1997	10月21~23日	第44回定期総会 豪州合同教会との宣教協約批准。日本キリスト教会との宣教協約批准・調印。憲法改正案通過。宣教90周年記念事業提言採択	
宣教90周年	1998	8月13~15日	宣教90周年記念合同研修会 300名参加 場所: 富士箱根ランド
		10月10日	宣教90周年記念大会 場所: 玉造マリア大聖堂 標語: 「立って イエス・キリストの光を放とう」
	10月26~28日	在日大韓・日本基督教団、第1回宣教協議会。50名参加。場所: 箱根アカデミーハウス	
	1999	10月19~21日	第45回定期総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と改称。「在日大韓基督教会の社会的責任に関する態度表明1999」発表
	2000	9月6日	東京総会神学校第1回卒業式。卒業生2名。場所: 東京教会
	2003	10月13~15日	第47回定期総会 大韓イエス教長老会 (合正) 及び米国長老教会全国韓人教会協議会 (NKPC) と宣教協約締結
	2005	1月24~25日	日北米宣教協議会 (JNAC) 解散総会 場所: 米国ルイビル
2007	4月15日	米国長老教会 (PCUSA) と宣教協約締結 場所: 大阪教会	
2008	8月13~15日	宣教100周年記念合同修養会 場所: 東京プリンスホテル 主題: 「感謝の100年、希望の100年」	
	10月13日	宣教100周年記念大会 場所: 大阪女学院ホールチャペル	

1908~2008



祈りと共に
写真で見る 宣教100年の歩み

기도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선교100년의 발자취

2008年10月13日発行

編集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在日大韓基督教会 歴史編纂委員会

発行 在日大韓基督教会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日本キリスト教会館52号室
TEL. 03 (3202) 5391 FAX. 03 (3202) 4977
E-mail : kccj@kb3.so-net.ne.jp
<http://kccj.net/>

印刷 株式会社 ローヤル企画